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

로년층의 활력 넘치는 생활중심, 조선족사회 든든한 버팀목



량태은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 지도부 성원들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회장 량태은)는 2004년 설립 이후 서란시 최대의 조선족 민간단체(사단법인)로 자리매김하며 조선족 로년층의 활력 넘치는 생활의 중심이자 조선족사회와 지역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임 회장 량태은의 탁월한 리더십과 확고한 지도력 아래 협회는 20년

간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협회는 서란시 및 주변 14개 조선족 행정촌의 21개 분회,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조선족 농촌사회의 특성상 마을 지킴이이자 새 농촌 건설의 든든한 협력자로서도 활발히 활동중이다.

또한 협회는 문화예술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다년간 연속 길림지역 문예경연대회 1등을 차지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무용부, 성악부 등 전문 예술단체를 운영하며 서란시정부의 주요 행사에서도 높은 수준의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량태은 회장은 초창기에는 임대 사무실에서 활동했으나 후기에는 조선족 로년사업에 대한 서란시정부의 관심과 지지하에 160여평방미터의 활동실을 무료로 사용, 회원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당과 정부의 로령사업 정책을 충실히 리행하고 조직적, 물질적 기반을 다져 생존과 가치를 입증해왔다.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규범화된 협회 운영을 통해 사회각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겠다.”고 량태은 회장은 말했다.

현재 협회는 로년대학, 문예, 체육 활동, 보건서비스, 고령자 집단 생일, 후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계적인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회원수 감소(과거 2,000명에서 현재 300여명)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량태은 회장은 2025년도 사업목표는 학습형 당지부, 학습형 로인협회를 건설하고 로인 문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로년생활을 풍부히 하며 로당원들과 골간회원들이 앞장서 사회공익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표했다.

봄과 가을철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 게이트볼시합을 기획하고 7월달에는 웃놀이시합을 조직하며 흥회 로년예술단은 6월에 개최되는 길림지역 단오행사 참가 준비, 9월에는 심양에서 열리는 전국조선족로인예술절 행사에 참가할 준비를 한다.

서란시조선족로인협회총회는 량태은 회장의 령도하에 선후로 수차 전국조선족로인협회로부터 전국선진협회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길림시인민정부로부터 민족단결선진집체로 표창받는 등 영광을 누렸다.

/ 차영국기자



송화강변서 '백성대무대' 문예공연 펼쳐



5월 11일, 길림시의 조선족 밀집지역인 길림시조선족중학교 부근 송화강변에서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 문예애호가들의 '백성대무대' 문예공연이 개최되었다. 길림시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에 협회 산하 각 분회에서 다채로운 문예종목을 선보였다.

협회 리학근회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 료동분회 소속 신국원회원의 독창 <봄의 고향>, 협회 산하 민들레예술단 김길호, 윤명복 부부의 남녀이중창 <자갈돌의 사랑>, 문묘본

회 전자관악단의 합주곡 <봄은 해변강 비추네>, <잊을 수 없는 그날>, 민들레예술단 소악단의 기악합주 <제비가 돌아왔네>, <고향의 봄>, 로인대학 전자관악반의 전자관악기 합주 <우리 삶은 해빛으로 가득하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관객들의 열띤 환호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큰 관심을 모으며 깊은 문화적 감동과 향수를 선사했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2025년 길림시마라톤 메달과 참가복 공개

최근, 길림시정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2025년 후구커퍼·길림시마라톤의 완주 메달과 참가복이 공개되었다.

이번 대회의 참가복은 동적 점층 효과(动态渐变)를 나타낼 수 있게 하는 남청색과 분홍색을 주요 색상으로 채택했다. 상의 부분은 송화강을 상징하는 짙은 남청색으로 디자인되었으며 허리 아래 부분은 남청색에서 분홍색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된다. 강변 아침 안개와도 같은 부드러운 색조 변화는 길림시 특유의 '북국 강성' 자연경관을 형상화함과 동시에 참가자들에게 강물이 흐르듯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전달한다.

참가복 가슴 부분에는 대회 명칭과 길림시의 상징물인 '배 띄우는 배사공' 조각상을 극간결 풍격으로 강조 처리하여 대회의 혁신적 기상을 구현했다.



하단에는 대회 로고가 점층 효과 속에 유기적으로 배치되어 참가자들이 송화강 연안을 달리는 동선에 따라 독창

적인 시각적 리듬감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복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통기

성, 흡습성, 속건 기능성 소재를 채택하여 경기중 쾌적한 착용감을 보장한다. 이번 디자인은 단순한 운동복을 넘어 도시 문화, 대회 정신, 상업적 가치를 아우르는 '움직이는 예술작품'으로 길림시 마라톤만의 독창적 이야기를 구축해나갈 전망이다.

완주 메달은 '청성맥동, 설운신생'(青城脉动, 雪韵新生)을 주제로 제작되었다. '자연과 인문의 공생',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핵심 내용으로 길림시의 생태적 토대, 산업 유산, 문화적 다원성을 응축하였으며 이는 마라톤 참가자와 도시가 일체화되는 상징적 순간을 형상화하였다.

한편, 마라톤 참가자들은 아름다운 송화강을 따라 도시의 역사와 현대적 매력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무송용매체

길림시 로봇견 야간 순찰 시대 열려



최근, 길림시에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첨단 순찰 도구가 등장했다.

지난 '5.1' 연휴 기간, 길림시 인민광장과 송강중로에서 두대의 로보트견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해당 로보트견은 경찰관을 동반해 야간 순찰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는 이들 로보트견이 길림시 공안국 특경대에 정식 배치되면서 첨단 스마트 순찰 시대의 서막이 열렸음을 시사한다.

현장에서 로보트견들은 정밀한 보행으로 순찰 임무를 수행했다. 귀엽고 미래감 있는 디자인 덕분에 수많은 시민들이 구경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TV에서만 보던 것을 실제로 보니 신기하고 멋지네요!"

"진정한 첨단기술이예요. 경찰 업무 지원은 물론 시민들에게 더 큰 안전감을 줄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 로보트견들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탐색 및 감시 업무 보조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 순찰이나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길림시공안국 관계자는 "로보트견의 도입으로 순찰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더욱 견고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향후 첨단기술과 경찰 업무의 결합이 확대되며 더 스마트한 도시 안전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 무송용매체

설립 8주년, 길림시 조선족촬영애호가 동아리 창작활동 활발히

길림시 조선족촬영애호가 동아리가 올해로 설립 8주년을 맞이했다. 책임자 감성을 비롯한 17명의 회원들이 다양한 촬영 활동을 펼치며 지

역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단체는 길림시 조선족사회 및 길림시 지역사회의 각종 주요 행사에서 열정적으로 촬영을 해왔다.

지난 겨울에는 중국 4대 경관으로 꼽히는 유명한 '성애꽃' 풍경 촬영 전시를 펼치며 길림시 관광 홍보에도 크게 기여했다. 또한 회원들

의 작품은 국가급, 성급 사진전에서 발표 및 수상하는 등 높은 수준을 인정받고 있다.

리화자회원의 작품은 2016년 전국백성촬영대회에서 우수상을, 2024년 제4회 중국길림국제빙설촬영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리화자회원이 2017년에 촬영한 길림시 국제마라톤대회 작품은 길림성녀성촬영협회로부터 우수상을 수여받았다. 길림성 소수민족 문예공연 장면을 촬영한 정원희회원의 작품은 《민족화보》2024년 제10호에 실리기도 했다.

책임자 감성은 이번에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회원들의 촬영 작품을 선별해 온라인으로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감동을 나누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 문창호특약기자, 차영국기자



길림시 송화강변의 봄날

교하시 오일촌

청소년 흥색교육기지로 탈바꿈

최근, 청소년 흥색교육 활성화를 취지로 교하시 신농가두에서 주최하고 오일촌조선족로인협회에서 주관한 '오일촌흥색전통교육기지' 설립 행사가 오일촌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서 오일촌춘천민원회 회주이며 춘로인협회 회장인 권태협은 "청소년들이 애국심과 고향 사랑을 키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하며 기지 설립을 공식 선포했다.

특히 행사에서 항미원조전쟁 전 용사인 86세 리제연회원이 생생한 전투 경험을 전하며 역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었다. 촌에서는 로병사 리제연에게 로병사 기념패

와 상금을 발급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기지 설립으로 청소년들은 오일촌에서 농업, 목축업 체험과 함께 흥색교양을 받으며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행사에서 춘로인협회 회원들은 뽕 넘겨받기, 굴레 던지기 등 전통 놀이를 즐기며 뉴데감을 다졌다.

이번 행사에는 신농가두 관계자와 오일촌조선족로인협회 회원 등 28명이 참가했다.

/ 한귀, 문창호특약기자

